

U-17농구대표 세계선수권 첫 8강 진출

중국 75-70 격파...군산고 이정현·신민석 선수 맹활약

한국 17세 이하(U-17) 농구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진출했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지난날 29일(한국시간) 스페인 사라고사에서 열린 2016 국제농구연맹(FIBA) U-17 세계선수권대회 16강전에서 중국에 75-70 승리하며 8강에 진출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에서 한국이 8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10년 독일대회에서 12위, 2012년 리투아니아대회에서 11위에 머물렀다.

2014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대회에서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한국 남자농구가 청소년과 성인대표팀을 통틀어 국제농구연맹(FIBA) 주관 대회에서 8강에 오른 건 대한민국농구협회가 FIBA 회원국이 된 194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1996 애틀랜타올림픽 이후 20년째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지 못하고 있는 남자농구의 현실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이다.

황금세대의 등장이 눈에 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이정현(17·군산고), 양재민(17·경복고), 신민석(17·군산고)이 주인공들이다.

이정현은 185cm의 가드로 이번 대회에서 경기당 23점을 몰아치며 득점부문 전체 3위에 자리했다. 어시스트는 평균 4.8개로 1위다.

빠른 공격력과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탁월하다.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에서 활약

중인 국가대표 슈터 이정현(29)과 경기스타일이 닮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공격롭게 이름도 같다.

최근 스페인 프로리그 유스팀의 입단 제의를 받아 화제를 모은 양재민은 198cm의 장신 포워드로 볼 핸들링과 스피드, 돌파, 슈팅을 모두 갖췄다.

경기당 17.5점 5.5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양재민은 지난해 FIBA 아시아가 선정한 베스트5 스포츠포워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유일한 청소년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농구공을 잡아 구력이 길다. 고교 선배인 국가대표 최준용(22·연세대)을 연상케 한다.

최준용과 양재민을 모두 지도한 신종석 경복고 코치는 "200cm의 신장에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셈이다."

두 선수 모두 기본기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향후 더 무섭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석은 이번 대회 출전명단에 포지션이 센터로 표기됐지만 사실 포워드 지원이다.

키가 197cm로 포워드에 어울리지만 이번 대표팀에서 3번째로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포인트 존에서 버티고 있다.

평균 15.5점 7.2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내외곽 공격이 모두 가능한 전형적인 포워드다.

한국 남자농구는 방성윤(33), 정상현(33), 정재호(33), 김일두(33·이상 은퇴) 등이 3학년으로 고교 무대를 주름잡던



복귀만 남았다 지난날 30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복귀를 앞둔 임창용이 견제 훈련을 하고 있다.

2000년 아시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중국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들은 '슈퍼 01학번'으로 불리며 한국 농구를 이끌어 갈 재목들로 평가받았지만 방성윤이 2002 부산아시아게임 금메달에 일조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황금세대의 등장이 반가우면서도 이들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한 주위의 올바른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양재민과 신민석은 각각 2009년과 2010년 KBL이 진행했던 '장신자 발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현재 이 프로그램

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장신자 육성 사업은 KBL에서 유망주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주최단체 지원금을 활용해 지원했으나 지원금이 기금으로 편입되며 프로 단체에서 아마추어 엘리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한국은 1일 8강전에서 대회 4연패를 노리는 세계 최강 미국을 만난다.

미국은 이 대회에서 세 차례 모두 우승을 차지한 최강이다. 16강전에서도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를 109-56, 53점차로 대파해 변함없는 실력을 과시했다.



김제고 하키팀, 전국대회 준우승 차지

김제고등학교 하키팀이 전국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9회 전국 종합하키팀선수권대회'에 참석한 김제고 하키팀은 예선부터 결승까지 단 한 경기도 패하지 않고 승승장구 하며 대회를 치렀다.

결승에서 하키 전통의 강호인 인천 계산고에게 아쉽게 패배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지난 춘계대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김제고 하키팀은 눈에 띄는 실력 향상으로 전국대회 새로운 강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체희영 김제고 하키팀 감독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결승까지 매 경기 최선을 다 해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부족한 점은 더 보완해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통합 전북축구협회 초대 회장에 김대은씨 선출

전북축구협회 김대은 전회장이 통합 전북축구협회의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김 회장은 29일 열린 통합 전북축구협회 창립총회에서 33명의 참석 의원중 32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됐다.

FIFA U-20 월드컵의 개막도시 선정과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유치 등 국제, 국내의 다양한 대회를 유치한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당선인 인사말에서 "우승을 꿈꾸는 엘리트 선수들과 건강과 행복을 도모하는 동호회 선수, 모든 선수 하나 하나가 모두 소중한"이라며 "여러분을 섬기는 자세로 통합축구협회가 튼튼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기자

리우올림픽 전복 9개 종목 14명 선수 출전 확정

숫자는 적지만 각 종목 유력한 메달후보로 꼽히고 있어

세계인의 축제 '제31회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복 선수 명단이 확정됐다.

육상, 수영, 배구, 자전거, 역도, 유도, 체조, 펜싱, 배드민턴 등 9개 종목에서 14명의 전복 출신 및 소속 선수가 출전한다.

참석하는 선수는 육상 마라톤의 심종섭, 수영의 박석현, 양준혁 배구의 이재영, 자전거의 나이름, 역도의 유동주, 유도의 김성민, 체조의 이상욱, 펜싱의 구분길, 김정환, 김지연, 황선아, 배드민턴의 유연성, 신승찬 등 총 14명이다.

숫자는 적지만 대부분 각 종목에서 유력한 메달후보로 꼽히고 있는 선수들이다.

전복 선수단 대표 임원으로는 자전거 종목의 김홍미 삼양사 감독과 체조 종목

의 윤창선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이들은 전복 선수단을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도울 예정이다.

대회에 출전하는 유연성 선수는 "도쿄 올림픽에도 계속 뛰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며 "이번 대회를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함께 최선의 경기감각을 유지하고 체력 유지에 중점을 뒀 반드시 우승을 차지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IOC 출범 122년 만에 최초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개최되는 이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8월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진행된다.

/김민근기자



전복 선수단 배드민턴의 유연성(왼쪽) 과 이용대(오른쪽)

통합 전북승마협회 초대 회장에 안성국씨

전북승마협회와 국민생활체육 전북승마연합회가 통합된 통합 전북승마협회의 초대 회장에 안성국씨(사진)가 선출됐다.

전북승마협회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안성국 회장은 4년간의 임기 동안 협회를 이끌게 된다.

안 회장은 이리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를 졸업 후 (재)평안문화재단이사장과 (주)그린이엔터, (주)세움산업개발 (주)그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안 회장은 당선인 인사말에서 "두 체육단체가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직 승마인의 화합과 승마 인구의 저변확대, 권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회장으로 주어진 4년간의 임기동안 전국승마협회중에서 가장 안정된 전북승마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